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4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내각부총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를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제출할



《주체 106 (2017) 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 107 (2018) 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는 다음해 국가예산 편성을 검토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제출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최근 조선반도정세 발전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보고가 있

며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투쟁과업들을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길데 대하여 언급하

고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의 최근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계속하여 우리 국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투쟁과업들을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길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제 6차 회의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천만군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돌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소집

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 과학연구기관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이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개회사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6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6(2017)년 사업정형과 주체107(2018)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대원이 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기광호대원이 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행동을 자력자강의 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해 생산적역량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기기 위한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훌륭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의 제의에 의하여 황병서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김기남대의원, 리만건대의원, 김원홍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의 위임에 의하여 김정각

대의원, 박광호대의원, 태종수대의원, 정경택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직무변동된것과 관련하여 박태성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정영국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수길대의원, 박철민대의원, 김창영대원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직무변동된것과 관련하여 박태덕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량정훈대의원, 김명길대원을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투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